봉축 앞둔 불교계, 자비 온도 뜨겁다

불교 각계 소외계층 돕기에 앞장
조계종 행복바라미 캠페인 전개
조계사 자비의 선물 전달 예정
각 지역 사찰 쌀·생필품 지원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 나눔행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불교계를 대표하는 나눔문화 행사인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에 불자들의 성원이 뜨겁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대축전이 4월 27일 개막한 가운데 5월 3일 서울 도심에서는 행복바라미 거리 모금 캠페인이 펼쳐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등 100여 명은 서울 인사동 일대와 풍문여고 앞 '행복바라미 모금소'에서 시민들과 모금캠페인에 동참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캠페인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이날 직접 캠페인 성금을 전달했다.

날마다좋은날 측은 5월 11일까지 서울 화계사와 도선사, 신도림역 등 전국 500여 행복바라미 모금소에서 나눔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도 5월 14일 지역 경찰관들에게 음료수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지원 협약을 맺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오늘의 인연으로 소외 계층들을 돌보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이 풍문여고 앞 행복바라미 모금소에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경찰관 및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할 자비의선물 지원 협약을 맺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실천행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무산복지재단(이사장 금곡) 산하 양양군노인복지관은 5월 12일 오전 10시 '2018년 어르신 큰잔치'를 개최한다. 양양군노인복지관은 이날 어르신들에게 중식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양양군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설악무산 스님의 뜻을 따라 지속적으로 어르신을 위한 잔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정의달 맞이 행사에 지역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논산 안심정사(회주 법안)는 4월 30일 논산장애인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자비의 쌀을 지역 장애인 단체에 전달했다. 안심정사는 매년 30톤의 쌀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군부대, 교도소에 보내왔다. 이날 안심정사는 지역 장애인 단체와 불교장애인복지타운, 호국연무사, 강경읍 등 자비의 쌀 10kg 쌀 250포를 전달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도 4월 29일 점등대법회를 열며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에 자비의 쌀 3000kg을 전달했다.

진주불교대학(학장 성공)도 4월 21일 진주 평거둔치 야외무대에서 '해피 붓다데이 동문체육대회'를 열고 아름다운동행에 쌀 10kg 1000포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 포교사회, 염불봉사단이 주관했다.

진주불교대학 학장 성공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의 작은 손길이 모여 굶주리는 이웃이 없는 좋은 날이 되도록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룩한 뜻을 새기어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가득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은 전국 군법당과 군부대 도서카페, 사찰 도서관 등에 불서 2000여권을 전달했다. 이번 불서 전달은 '불교 포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진흥원은 "자비 나눔과 불교출판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불서 보급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증한 불서는 경허 스님과 만해 한용운, 사명대사, 부처님생애, 불교문화와 상식, 최강의 명상법 등 19종이며, 이중 만화책이 다수 포함됐다. 또 진흥원은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보존위원회에 봉축행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불교계 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풍성'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 복지관에서는 풍성한 어버이날 행사가 앞 다퉈 진행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5월 3일 종로구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운스바운스 시즌 4- 청춘열차로 떠나는 종로마을 대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복지관 4층 종로마루 홀에서 시작됐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이 준비부터 진행까지 직접 주도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관 스님을 비롯한 복지관 직원들이 고령어르신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사진〉에 어르신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 복지관서는 보물찾기, 댄스파티,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관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득찬 특별한 하루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운희)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복지관은 2일에는 관할지역 내 3개 경로당(삼성사이버, 중림, 충정)의 어르신 총 80여 명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고 지화 카네이션을 선물했다. 또한 3일에는 지역 어르신 100여 명을 초대해 음식과 안마기 등 어버이날 선물을 제공했다. 이운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올해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우리 복지관 이용자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태종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종세)서는 5월 8일 '제46회 어버이날 기념 청춘의향기가 가득한 孝축제'를 열었다. 사회복지사 및 생활관리사들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다양한 선물도 제공했다. 동시에 이벤트 부스도 마련해 네일아트, 염주만들기, 치매예방상담, 바자회 등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진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20 의복 衣着。

○書云, 春氷未泮, 衣欲下厚上薄, 養陽收陰, 繼世長生。

얼음이 아직 녹지 않은 이른 봄에는 옷을 하체는 두텁게 입고 상체는 얇게 입어야 한다.⑩ 이는 양(陽)을 기르고 음(陰)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이니 해마다 계속하면 장생하게 된다.

○ 書云, 春天不可薄衣, 傷寒, 霍亂, 食不消, 頭痛。

봄 날씨에 옷을 얇게 입으면 감기에 걸리거나 두통, 소화불량, 곽란(霍亂)⑪이 생긴다.

○書云, 大汗能易衣佳, 或急洗亦好。

많은 땀을 흘린 후 옷을 갈아입으면 참으로 좋다. 혹은 급히 몸을 닦아도 역시 좋다.⑫)

○書云, 大汗偏脫衣, 得偏風, 半身不遂。

많은 땀이 나서 옷을 일부만 벗었는데 벗은 부위에 바람을 쐬면 그쪽 반신이 마비된다.⑬)

○書云, 濕衣汗衣, 不可久著, 發瘡及風燥, 二腑不利。

젖은 옷, 땀에 젖은 옷을 오래 동안 입고 있지 말라. 두드러기 및 피부건조증이 생기고 폐(肺)와 대장(大腸)에 불리하다.

○書云, 飮酒汗出脫衣, 靴, 襪, 當風取冷, 成脚氣。

술 마시고 땀이 나서 옷, 신발, 버선을 벗고서 다리에 바람을 쐬어 서늘해지면 각기(脚氣)가 된다.⑭)

○書云, 冬時綿衣裘褐之類, 急寒急着, 急換急脫。

겨울에 솜옷, 털로 짠 이부자리 종류는 갑자기 추울 때 급히 입거나 덮었다가 기온 · 체온이 상승하면 급히 벗거나 치워야 한다.

○陶隱居云, 綿衣不用頓加添, 稍暖又宜時暫脫。

도은거(陶隱居)가 말하기를, "솜옷은 항상 입지 말고 추울 때 급히 입었다가 더워지면 마땅히 잠시 벗어야 한다.

○鎖碎錄云, 若要安樂, 不脫不着, 北方語也。若要安樂, 頻脫頻着, 南方語也。

《쇄쇄록(鎖碎錄)》에 이르기를, 그대 만약 안락(安樂)하고 싶거든 옷을 벗지 말고 갈아입지도 말라. 이는 북방의 속언(俗言)이다. 그대 만약 안락하고 싶거든 옷을 자주 벗고 자주 갈아입어라. 이는 남방의 속언이다.

註解。

1) 목욕을 덜하면 마음과 눈에 유익하다.: 본서의 主旨는 몸 씻기에서 얻어지는 청결한 외모와 질병예방보다는 잘못된 몸 씻기에 의한 發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자의 견해도, 지금까지의 임상통계로 보아 7:3으로 發病쪽이다.
현대인, 선진국인들이 前時代人, 후진국인들보다 암 · 중풍 · 당뇨병 · 난치성 희귀병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나 짐작하는 스트레스 · 과식 · 운동부족 · 공해가 主原因이긴 하나 잘못된 몸 씻기의 해독이 이상의 것들 중 어느 하나에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 의료인과 국민을 총망라해도 거의 없다. 감기의 원인 정도로 아는 것이 한 · 양방의학계와 국민의 실상이다.
唐代의 문헌을 보면 官員과 富豪는, 머리감기는 3일에 한번, 목욕은 7~10일에 한번이다. 중국의 俗說에 "자주 몸을 씻으면 복이 달아난다."가 있으니 五福인 壽 · 富 · 貴 · 多男 · 考終命중 首位의 壽를 잃는다고 推理할 수도 있다. 또한 전문적인 養生書와 仙經도 목욕의 횟수에 대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땔나무로 불 지펴 물 데워 씻는 시대의 관습, 혹은 물이 부족한 지방의 전통이라고 致付하기에는 無理가 있다.

지나침은 오히려 못 미치는 것이다. 過猶不及。《論語 · 先進》

현대인, 선진국인들은 분명히 지나치게 많은 몸 씻기를 하며 잘못된 몸 씻기를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물 부족현상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몸 씻기를 위한 물소비가 아니라고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학설은 이론의 바탕위에 실험으로 증명해야 正說이 될 수 있다. 목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한 · 양방의학계에서 청결에 의한 질병예방 외에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讀者諸位부터 청결위주의 목욕개념을 버리시고 본서의 방법을 실천하여 체험한다면 기존의 오류에서 벗어나 건강장수의 새로운 地坪을 열게 될 것이다.

2) 곤륜(崑崙) : ①파미르 고원의 곁에 있는 西藏에서 시작하여 중국 쪽으로 뻗어있는 大山脈.
②足太陽膀胱經의 經穴名. 足外踝後5分 腓骨後外側.

3) 가병(瘕病): 原名은 癥瘕.《河間六書》에 이르기를, 癥은 뱃속에 뭉쳐 단단한 것이 있어 눌러보면 손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聖惠方》에서는 그 명칭을 征에 비유하였다. 처음에는 물처럼 柔順하였으나 땅처럼 단단하게 변한 것이니 단단해질수록 해로우니 속히 다스려야 한다. 瘕는 만져보면 단단하기는 하나 홀연히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여 常形이 없다. 그래서《聖惠方》에서 假라고 하였다. 癥瘕의 병인과 治法은 積聚와 같다. 자세한 것은 卷之二上의 54p 註解⑧) 적병(積病)을 참고하시라.

4) 2척(二尺) : 一尺은 30.3cm이니 60.6cm이다.

5) 웅황(雄黃): 黃金石, 石黃이라고도 한다. 氣味는 苦, 平寒, 有毒하다. 主治는 寒熱, 惡瘡疽, 痔疾, 殺精物, 惡鬼邪氣, 治蟲毒, 制煉하여 먹으면 輕身하고 神仙이 된다. 雄黃을 몸에 차고 다니면 귀신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며 산에 들면 범과 이리도 복종하고 물에 들면 毒物이 감히 해치지 못한다.《抱朴子》에 이르기를, 웅황을 휴대하고 숲에 들면 뱀이 근접치 못하고 뱀에 물린 상처에 가루내어 붙이면 즉시 낫는다. 또한 虫風을 당하지 않게 되고 당한 자는 가루를 몸에 바르면 낫는다. -《本草綱目》

6) 5림(五淋) : 소변이 좁쌀처럼 떨어지며 성기와 배꼽에 통증이 있고 아랫배가 땡기는 증상을 淋이라고 하고 원인과 증상에 따라 勞淋, 血淋, 熱淋, 氣淋, 石淋으로 나눈다.

7) 5치(五痔) : 항문안팎에 생기는 5종의 질환. 牡痔, 牝痔, 陽痔, 脈痔, 血痔.

8) 비상(砒霜): 信石, 人言이라고도 하며 生者는 砒黃이고 鍊者는 砒霜이다. 氣味는 苦酸하고 暖하고 有毒하다. 主治는 療諸瘧 風痰在胸膈, 婦人이 血氣가 치솟아 생긴 心痛과 落胎를 다스린다. 蝕癰敗肉, 枯痔. 大毒하므로 소량만 먹어도 사람, 짐승이 죽는다.

※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198-5351

"온 세상 난치병 환아에게 희망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3000배 철야정진 성료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건네기 위해 조계종이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 4월 28일 조계사에서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연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이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치료비를 모연하는 행사다. 2001년 첫발을 내딛은 후, 18년간 4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총10억여 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2011년부터 라오스에서도 40여명의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고귀한 정성이 감동을 주고, 세상을 깨워 사회를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리는 오늘의 절이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치유의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캄쑤와이 께오달라봉(Mr. Khamsouay KEODALAVONG) 주한 라오스대사는 "라오스에서 난치병어린이들과 아동복지를 위해 힘쓰는 재단의 도움으로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치료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뇌병변 장애로 투병하며 2년전 치료비 지원을 받은 최승현 학생의 아버지 최윤영씨는 "오랜 투병생활로 희망을 잃어가던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손길로 힘이 되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 따뜻한 위로와 마음속 용기를 채워준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 가족 역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조계사서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연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참가자들은 중앙승가대학교 학인스님들의 정근과 죽비소리에 맞추어 29일 새벽 3시까지 철야정진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이어갔다.

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밤새워 마지막까지 함께 한 100여분께 감사드린다. 새벽까지 간절하고 맑은 마음을 담아 온 몸으로 표현한 오늘의 기도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조계사 현장에서 모금된 치료비는 5월 말까지 온라인 모금을 지속한 후, 치료의 시급성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선정 회의를 거쳐 난치병 어린이 지원 대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02)723-5101,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5-95104

박진형 기자

공불련 "공심으로 국민 섬기자"

월정사서 4월 28~29일 합동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4월 28~29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제26차 성지순례 및 제19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공불련 회원과 가족 250여 명이 참가했다. 공무원 불자들은 "공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4월 28일에는 수계법회가 열렸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계를 받아 다시 한 번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수계법문에서 "오계를 잘 지키고 실천하며, 부처님의 제자로서 공직사회의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이 공심복무를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 불자들은 저녁공양 후 월정사 포교국장 각엄 스님의 지도로 목탁 집전을 배웠으며, 이어서 진행된 임원단 회의에서 2018년 주요 일정 및 각 기관불자회 일정을 공유했다.

노덕현 기자